

# 신안군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총력

다음달 17일 대상지 최종 결정  
신안갯벌·퍼플섬·조개박물관 등  
해양수산 보고·적임지 피력

신안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해양수산 생태분야를 총망라한 1200억 규모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최종 대상지가 오는 10월 17일 결정된다.

신안군은 이에따라 민·관이 협심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현재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부산 소재 1곳이 유일하다. 신안군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과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정평이 난 퍼플섬을 보유한 신안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기관인 만큼, 지난 1975년 '해저 유물'이 발굴되면서 동양문화사 연구에 깊이 빛날 업적이 남아있는 데다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작성된 곳이기도 한 신안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적임지라고 할 만하다.

이미 신안군에는 갯벌을 자원화하기 위해 3000여 종 1만 1000여 점의 세계 희귀 조개와 고등을 테마로 한 박물관이 자은도에 조성돼 있다.

또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유치에 적극 나섰다. 신안 조개박물관. <신안군 제공>

신안군 천일염은 세계 3대 천일염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구가중요어업 유산으로 '흑산홍어잡이어업', '신안천일염업', '신안갯벌낙지맨손어업' 등이 보전,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신안군에서는 매년 다양한 해양 축제들도 펼쳐진다. 매년 흥어 축제를 비롯한 10여 개의 수산물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민과 수산 종사자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고, 오는 9월에는 '섬 왕새우 축제'를 시작으로 '홍도 불볼락 축제' 그리고 '새우젓 축제'가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신안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는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1도 1뮤지엄'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는 신안군이 보유한 과거와 현재의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과 미래를 대비한 해양 중심지로의 입지를 굳건히 해 신안군이 수산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 1.69km 4차선 23일 착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를 23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목포신항 진입도로는 주민생활도로로 신항 배후수송망 기능을 동시 수행하면서 차량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대형 트럭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목포신항과 삼호읍 영암테크노폴리스(구 대불국가산단) 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1.69km, 폭 25.5m, 왕복 4차선의 대체 진입도로를 건설한다.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시점-중점 포함 4곳에 교차로를 만들어 진출입로를 확보한다. 총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해 2026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수 목포해수청장은 "대체진입도로 확보를 통해 차량정체 해소와 이동 거리 단축 등으로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불러와 향후 30년간 약 65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에 주말농장 개장

### 26가구 가구당 13㎡ 분양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에 주민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개장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부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참여자 26가구를 접수받아 가구당 약 13㎡(4평)의 텃밭을 분양했다.

최근 열린 주말농장 개장식에서는 주말농장 이용 안내, 간단한 작물재배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텃밭 팻말 꾸미기와 재활용품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개장식에 참여한 한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농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군에서 주말농장을 분양해 줘 고마울 따름"이라며 "앞으로 주말농장에 자주 방문해 가족들이 먹을 농작물을 열심히 가꾸게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말농장이 가족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주말농장 체험을 통해 농업에 대해 이해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스마트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 해남군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AI·사물인터넷 등 활용 정책 반영

해남군이 스마트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남군은 오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45일간 해남 특화형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군민 생활 체감형 서비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관광명소 및 공원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역사자원 활용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 및 해남군 소통넷, 공모전 포스터에 연계된 QR코드 등 게시된 링크를 통해 구글폼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효과성과 창의성 등을 고려해 우수 공모팀을 선발하며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2명(30만원), 장려상 4명(10만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해남군이 첨단 산업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및 소통넷을 참고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다이어는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 및 해남군 소통넷, 공모전 포스터에 연계된 QR코드 등 게시된 링크를 통해 구글폼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효과성과 창의성 등을 고려해 우수 공모팀을 선발하며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2명(30만원), 장려상 4명(10만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해남군이 첨단 산업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및 소통넷을 참고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진도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직거래 유통 활성화 MOU 체결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 친환경농업협회,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지역농산물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군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진도군 친환경농업협회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각 협회 대표와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25개 자치구에 1824개소 8만여명의 아동이 속해 있고, 전국에서 가장 큰 어린이집연합회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많은 곳이다.

진도군 친환경농업협회는 ▲관내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100% 공급 ▲계약재배 통한 친환경농산물 확보 ▲공급 품목 확대 위해 계절별 생산농가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중이다. 각 어린이집의 요청하는 규격과 시간에 맞춘 납품을 목표로 진도아리랑볼과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제공, 아동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관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영광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 적발땀 과태료 10만원 부과

영광군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자에 대한 강력단속을 이어간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단속지역이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확대돼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

전구역 표시선·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영광군에는 지난 8-9월까지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접수된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와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생활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자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시 현장단속도 가능하다.

/영광=이종수 기자 jylee@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